

# 에 배 WORSHIP

January 20,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직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3서 2절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주께 가오니
	현신과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홍정임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은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4:1-17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 목상에세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20-21)

잘 아는 이 부자의 비유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리에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을 다 누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을 뿐,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다.

사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큰 도전이다. 수시로 재물이 많으면 평안과  
즐거움이 있으리라는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착각임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점이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리라는 믿음. 그러나 어리석은 착각. 그런데도  
여기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이 잘되기를 최우선의 목표를  
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자가 됐으니 이제 나는 행복할거야.’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행복하겠지. 난 뭐야.’라고  
비교하며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 모두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물을 가진 자도 자기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  
없는 자도 재물을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절실하다. 나는 지금 얼마나 이 재물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Rembrandt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The Rich Fool]

누가복음 12 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보여준다.  
부자는 손에 금화를 쥔 채 보고 있다.  
쌓여 있는 책은 17 세기 당시에 흔히 허영심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 보이는 글자는  
히브리어로 성서적 배경을 나타내므로 부자의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부의 집착을 대조시킨다.  
이 비유를 통해 부를 위해 인생을 다 쓰는  
허망함을 교훈하며, 돈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삶이 지혜로움을 말한다

### 한 주간의 기도

"하나님. 배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늘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허황된 마음으로 자신을 달래거나 가치 없는 것을 좇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속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결단 속에서 삶이 예배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네 청춘은 목수의 기이 새를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5)  
“네 소망은 만민에게 유서  
유서 만민에게 유서”

## 교회와사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작으면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교민의 일환으로 앞으로 칼 베이더스, 『작고 강한 교회』(생명의 말씀사, 2018)의 내용을 소개한다.

### 2.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 안주하지 마라

위대한 교회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협력하고,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이 이행한다. 그러나 스스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다.

90퍼센트의 교회가 200명 이하라는 보고를 교단 총회에서 듣고 나는(250명이 안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다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작은 것이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 나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비율은 지역과 교단과는 상관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 즉 교인의 숫자에 국한하지 않고 교회의 건강과 활력과 복음 전도의 열정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쨌다고?'의 반항적 반응이 '우리 교회는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그 결과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쓸모 있는 사역을 하게 됐다. 잠시 멈추고 '작아서 어찌지, '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보라. 교회가 작기 때문에 유리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

#### 목회자는 목자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끄는 데 필요한 행정력과 은사를 모두 겸비하고 있기는 매우 드물다. 목회자는 목자다. 목회자는 위대한 목자가 되어 작은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목양의 모든 사역을 목회자 혼자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심신이 고갈되고,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목회자는 신자들이 사역을 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가 작으면 그런 일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세상은 건강한 작은 교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만일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없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작은 교회들이 일정한 성장에 이르지 못했다고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이는 없다. 작은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신자들은 작은교회의 세대 간 소통을 원하기도 한다. 믿음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더 작은 환경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대형교회가 할기 차게 많은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충족 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목양받기를 원한다.

건강한 대형교회는 대개 크게 성장하면서 '작게' 사역하는 것을 계속한다. 이는 주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지속된다. 그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소그룹 지도자가 아닌 목회자에게 직접 목양을 받을 때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그런 욕구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고 교회는 그의 뜻에 의해서워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세히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겸손히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가 작고 건강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더 큰 것이 좋다.'는 사고 방식에 사로 잡힌 문화 속에 살고, 그런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 나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한다. 크기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작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뜨거운 열정 없이 사역을 대충해도 좋다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작은 교회를 상상해 보라. 작다는 것이 더 이상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1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내 영혼이 짙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칠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새해 새벽집회와 기도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힘씁시다.
- 각 사역위원회은 새해 사역계획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늘 예배 후 정기제직회/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결산/예산 및 1/4분기 사역
- 제직/사역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주제 - 질서와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교회 (주일 오후, 1/13-2/10)
- 매월 셋째 주일은 관리사역 주일입니다. 오늘 일정 후 교회 청소를 위해 힘을 합칩시다.
- 신년 심방이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교우 동정: 김윤경 사모, 한국 방문 중

★ 이달의 생일 축하 : 이진애(1.8) / 정홍렬(1.21) / 박강현(1.20) / 구민성(1.26) / 유혜영(1.29)

### 기 도 제 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예 배 섬 김 이

주일예배기도	1/20	1/27	2/3	2/10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25	2/1	2/8	2/15
	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	유동숙집사	정홍렬목사
주일헌금위원	1/20	1/27	2/3	2/10
	김훈태집사/홍정임집사	박진성집사/정줄리권사		
주일안내위원	1월		2월	
	정줄리권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 누가복음 15:11-24

아들은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 먼 나라에서 유산을 허비한 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서야 아들은 정신을 차렸다. 만신창이가 된 최악의 순간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 온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최고의 것을 준비하며 기다렸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잃은 것을 얻은 것이라며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리사랑을 부어 주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답답해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도 내리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와야 한다. 사탄과 세상이 유혹해도 내리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 요한3서 2절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_\_\_\_\_  
\_\_\_\_\_  
\_\_\_\_\_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긴 사람  
\_\_\_\_\_  
\_\_\_\_\_  
\_\_\_\_\_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_\_\_\_\_  
\_\_\_\_\_  
\_\_\_\_\_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혼의 잘됨 아니면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  
\_\_\_\_\_  
\_\_\_\_\_  
\_\_\_\_\_

섬김의 교회가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이웃 사랑을 더욱 더 많이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 요한3서 2절

오늘은 가이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섬김을 점검하고, 2019년의 사역의 지표로 삼습니다. 요한 3 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가이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요한에게까지 들려왔고, 이로 인하여 요한이 심히 기뻐했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이나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함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가이오는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한 두번은 억지로, 의무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라고 해도 계속하여 물을 퍼내면 결국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아니라 웅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웅덩샘은 아주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웅덩샘의 물은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퍼낸 만큼 맑은 물이 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영성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영성은 직장이나 사업,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밀리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인간관계에 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취미생활이나 오락에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미루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 반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2019 년 새해 섬김의 교회가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이웃 사랑을 더욱 더 많이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사도 요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잘 될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anuary 20,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1월 20일

5-3호

새롭게 출발 달  
관리지역 주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아가야 왜 거기서 울고있니?  
나에게 얘기해 주겠니??  
나는 너의 과거의 실수와 현재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주지만  
두려움은 네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간다.